

허인회, KPGA 매치플레이 4연승으로 16강 A조 선두

등록 2021.06.05 18:38:44



[서울=뉴시스] 허인회의 드라이버 티샷. (사진=KPGA 제공)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에서 허인회(34)가 4연승으로 조 선두를 달렸다.

허인회는 5일 경남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6강 조별리그 A조 2경기에서 강경남(38)을 1홀 차로 이겼다.

1대1 매치 플레이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6강을 조별리그로 치른다. 4명이 한 조에 속해 1~3경기를 치러 순위를 정한다.

아내인 캐디 육은채씨와 함께 나선 허인회는 강경남, 김태훈(36), 마이카 로런 신(미국)이 속한 A조에서 2연승을 달렸다.

이날 오전에 열린 1경기에서 마이카 신을 5홀 차로 제압했고, 오후에 진행된 2경기에서 강경남을 꺾었다.

허인회는 64강전과 32강전 승리를 포함해 이 대회 4연승을 달렸다.

지난달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시즌 첫 승에 성공한 허인회는 시즌 2승이자 통산 5승에 도전한다.

A조에서 마이카 신은 2경기에서 김태훈을 3홀 차로 꺾고 1승1패가 됐다. 김태훈과 강경남은 1무1패다.



[서울=뉴시스] 캐디인 아내와 13번홀 공략지점을 바라보는 허인회. (사진=KPGA 제공)

B조에서는 안준형(27)이 1승1무로 선두다. 1경기에서 홍순상(40)을 이겼고, 2경기에서 이동민(36)과 비겼다.

이동민도 1승1무지만, 홀별 승점에서 안준형에게 밀려 2위다. 안준형이 승점 3, 이동민이 승점 1점이다.

홍순상은 2경기에서 이성호를 1홀 차로 제압하고 1승1패를 기록했다. 이성호는 2패다.

C조에선 이태훈(캐나다)이 2승을 기록했다. 1경기에서 백석현(31)을 이겼고, 2경기에선 김진성(32)에 승리했다. 김진성과 김영수(32)는 1승1패고, 백석현은 2패로 조 최하위다.

D조는 이원준, 이준석(이상 호주), 박은신(31), 차강호(22)가 나란히 1승1패를 기록했다.

조별리그 마지막 3경기는 6일 오전에 진행되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2명이 6일 오후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